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전개와 특성

- I. 서론
- II.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추진배경
- III.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전개
- IV. 결론: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특성

KOCCA
FOCUS

요 약

- 세계 창조산업의 대표적인 정책 모델인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시행 내용,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영국의 창조산업 정책 모델은 선두주자인 영국을 위시하여 영연방 국가들인 호주, 뉴질랜드와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채택하였고, 그 외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침
-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추진 배경
 - 대처 내각에서부터 진행된 1990년대 후반의 영국 중공업의 몰락과 제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1997년 입각한 ‘신노동당’(New Labour)이 국가 발전을 주도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창조산업 육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
- 영국 ‘창조산업’의 개념: 2005년을 계기로 ‘창조경제’ 개념으로 변화
 - 영국의 ‘창조산업’ 개념 규정은 영국 정부 보고서인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CIMD, 1998)속에서 처음으로 공식화 되어 사용되다가, Howkins(2001년), Florida(2002년) 등의 ‘창조경제’ 개념에 영향을 받아 2005년 “창조경제 프로그램”(CEP: Creative Economy Program)을 가동하면서 공식적으로 ‘창조경제’ 개념으로 변화
-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전개: 시기적으로 블레어 내각기(1997-2007), 브라운 내각기(2007-2010), 카메론 내각기(2010-현재)로 나눌 수 있음. 블레어 내각기는 다시 제1기(1997-2001)와 제2기(2005-2007)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블레어 내각의 제1기는 1997년 기존의 ‘국가문화유산부’를 ‘문화매체스포츠부’(DCMS)로 확대 개편하고, ‘창조산업테스크포스’(CITF, Cultural Industries Task Force)를 구성하여 CIMD(1998년, 2001년)를 발간

- 블레어 내각 제2기는 2005년 조사그룹(investigatory groups)을 운영하고 산업계 전문가들의 조언(industry consultation)을 청취하는 ‘창조경제 프로그램’(CEP)을 실행하였음
 - 브라운 내각기에는 2007년 CEP의 결과를 바탕으로, ‘Creative Britain’(2008년) 보고서를 발간, 그 속에 제시된 주요 26개 과제를 시행함
 - 카메론 내각기에는 창조경제 정책이 성장을 위한 조건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변화되었으며, 주로 스포츠, 관광산업 지원, 규제 개혁, 인프라 조성, IT, 디지털화 등 과학·기술·엔지니어링 분야에 정책적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
-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영국 창조산업 정책은 ‘신노동당’(New Labour)에 의한 일관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짐
 - 영국 창조산업 정책은 문화 정책이 아닌 산업 정책
 - 주요한 목표는 산업의 혁신(innovation)과 비즈니스 창조에 있음
 - 창조산업을 통한 경제 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 수출 증진, 지적 재산권 보호 등 국가의 산업과 도시 경쟁력 증진이 주목적
 - 창조산업을 정부차원에서 이용해 국가정체성 관리(national identity management), 국가 이미지 제고, 국가 브랜드화(branding)와 국가 마케팅을 통해 외국인 투자, 외국 기업 유치, 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 영국 창조산업 모델은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평가됨.
 - 영국의 정책은 창조산업 육성에 있어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수용자 복지(welfare) 측면에 대한 고려가 빈약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I. 서론

-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창조산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을 중심으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등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등이 있음
- 영국을 위시해서 세계 각국이 창조산업 정책을 펼치는 주된 이유
 - 1) 높은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창조산업 정책의 주된 동인은 경제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함. 실제 1990년대, 2000년대 창조산업은 매우 높은 경제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력이 있음을 입증함
 - 2) 창조성과 혁신(innovation)이 성장 요인이라고 인식: 정책 측면에서 창조성과 혁신이 지식경제에서 새로운 중요한 경쟁력을 가진다고 인식하기 시작했고, 일종의 산업 영역으로 육성되어야 할 분야로 인식되기 시작함
 - 3) 소비패턴의 변화를 통한 시장의 확대: 창조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사회, 문화의 소비 변화를 이끌고, 좀 더 부유한 집단의 증가는 좀 더 많은 문화와 문화상품을 소비하게 되므로, 더욱 시장이 확대됨을 의미
 - 4) 국가 브랜드 인지도 확산: 이를 통한 타 산업에의 간접적 영향과 직접 투자 유치 등의 경제적 효과 확산을 위함
 - 5) 새로운 지식 영역으로서 문화 경제의 등장: 창조산업의 개념이 확산됨에 따라 문화적 영역이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미래 산업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과학적 혹은 대중과학적인 연구들을 통해 문화경제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정책 당국은 경제적 측면으로 문화정책 영역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접근할 수 있게 됨

- 영국을 위시하여 세계 각국의 창조산업 정책은 문화정책에 뿌리를 둔 정책집행이 아닌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
 - 정책의 주안점도 창조산업의 경제적 성장을 위한 진흥 정책, 창조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 국가 브랜드 사업 등에 치중하고 있음
- 세계 창조산업의 주요 정책 모델은 다양하나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모델임
 - 현재 영국 모델은 영연방 국가들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대표적인 창조산업 정책 모델로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음
- 영국 모델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현황과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 1) 영국 창조산업 정책 추진의 배경: 정책의 기원, 개념의 변천
 - 2)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전개
 - 3)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특성 분석

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함

II.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추진 배경

1.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기원

○ 대처 정부에서 창조산업 정책의 아이디어가 연원함

- 대처 내각에 의해 진행된 탈중공업화와 탈제조업화(탈산업화)에 대한 대안으로 포스트 산업화(post-industrialization)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ICT 산업과 지식, 창조산업이 부각됨
- 1983년 마가렛 대처 정부의 ‘정보사업 만들기’(Making a business of Information)라는 공식 리포트 속에 이미 나타남. 이 리포트는 영국경제가 원자 경제(Atom Economy)에서 비트 경제(Bits Economy)로 넘어갈 것을 제시. 이때 부터 ICT와 창조산업은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제시됨. 이 속에서 공적 영역에서 창조 노동자들의 양성과 효율성을 위한 지원,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¹⁾

○ 신노동당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됨.

- 1997년 입각한 ‘신노동당’(‘New Labour’)은 1990년대 후반 영국의 중공업의 몰락과 제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국가 발전을 주도할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창조산업 육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
- 1980년대 후반부터 런던광역시의회(GLC, Greater London Council)에 의해 이루어지던 문화산업 정책을 리버풀, 맨체스터, 글래스고, 셰필드 등 영국의 전통적 제조업 중심 도시가 이어받아 문화육성 전략을 통해 탈산업화에 대응해 오던 것을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확대시킨 것임²⁾

1) Garnham, Nicholas,(2001)

2) 정중은(2013)

- 영국에 의한 창조산업 정책 모델은 세계 각국으로 전파됨
 - 영국 정부에 의해 창조산업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도 기존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창조산업과 문화적 기업의 역할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잠재력,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이 알려지고, 지식자본의 창조에서 발생하는 가치가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과 타 경제 분야의 혁신의 촉매제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창조산업 정책을 시행하게 됨

2. 영국 창조산업의 개념 변화

- 영국 ‘창조산업’ 개념은 호주에서 처음 언급됨
 - 호주 정부는 1994년 발간한 ‘Creative Nation’이라는 주요한 정책 보고서에서 이미 사용³⁾
- 영국에 의한 공식화 된 개념 규정과 사용
 - 영국 정부 보고서인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CIMD, 1998)속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창조산업 개념을 “개인의 창조성, 솜씨(skill), 재능(talent)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발생 및 활용을 통해 일자리와 부를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활동”으로 정의함. 이 개념은 두 번째 CIMD(2001) 속에서도 그대로 사용됨
 -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은 탈산업화된, 정보화된, 또는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가 이끄는 사회의 서비스 산업을 지칭하기 위해 기존의 ‘창조’예술과 문화 ‘산업’ 개념을 새롭게 조합한 것으로 개념 정의하기도 함⁴⁾
- 영국에 의한 국제적인 확산

3) Throsby, D.(2008, p.218)

4) Hartley, J.(2005, p. 6)

- 창조산업으로의 산업 구조의 변화를 ‘창조적 전환’(Creative turn)으로 명명하며 이는 영국적 독트린(담론)으로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여 다수의 국가들로 전파되는 계기가 됨
- ‘창조산업’ 개념의 ‘창조경제’ 개념으로의 변화
 - 영국의 창조산업 개념은 2000년대 초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개념으로 변화되는데, ‘창조경제’ 개념은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John Howkins)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창조적 인간, 창조적 산업, 창조적 도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 체제로 창조적 행위와 경제적 가치를 결합한 창조적 생산물의 거래’로 정의함⁵⁾
 - 2005년 영국 정부는 Creative Economy Program을 통하여, 창조산업이 창조성(creativity), 즉 혁신성(innovation)으로 경제 전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으며, 이때부터 창조산업은 창조경제 개념으로 전환됨. 이를 공식화 한 보고서는 DCMS의 2008년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 보고서 임⁶⁾

Ⅲ.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전개

1. 토니 블레어(Tony Blair) 내각의 창조산업 정책: 1997년 ~ 2007년

○ 전략적 창조산업 육성

- 보수당 대치 정부에 이은 신노동당(New Labour) 토니 블레어 정부는 국가적 기

5) Howkins, J.(2001). The creative economy: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Penguin UK. 호킨스는 창조성과 경제 각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둘이 형성하는 관계의 속성과 정도, 그리고 그들이 결합하여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방식에 새로움이 있다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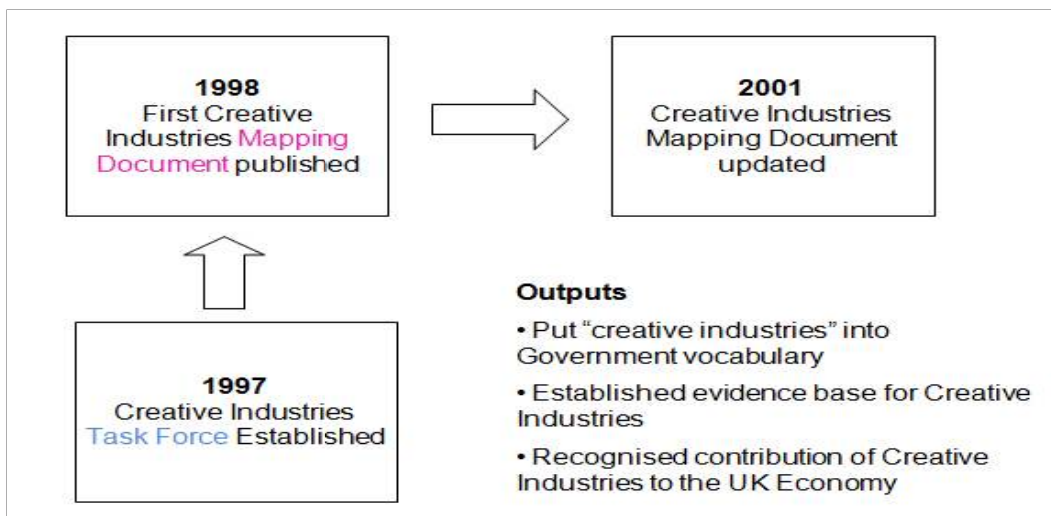
6) Banks & Hesmondhalgh(2009, p.422)

획의 일부로 ‘쿨 브리타니아’(Cool Britannia)라는 슬로건 아래 창조산업 육성전략을 가장 우선시되는 국정과제로 꼽음⁷⁾

○ 창조산업 정책의 시기 구분

- 토니 블레어 정부에서 이루어진 창조산업 정책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짐: 1기(1997년 - 2001년), 2기(2005년 - 2007년)

1) 제 1기: 1997년 - 2001년



<그림 1> 블레어 내각의 제 1기 창조산업 정책 전개⁸⁾

- 1997년 기존의 ‘국가문화유산부’(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를 ‘문화매체스포츠부’(DCMS,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로 확대 개편
 - DCMS를 통해 창조산업 진흥정책을 입안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시작됨

7) Birch Sofie,(2008). “토니 블레어의 1997년 9월 9일의 연설 속에서 “영국에서 관광과 디자인 분야에 수백만 명이 종사하고 있고, 디자인산업은 연간 120 파운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3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분야이다. 록 뮤직으로 벌어들이는 해외 수입은 철강 제조보다 더 크다”고 언급함.”

8) Will Calladine(2009).

- DCMS의 조직을 개편하여 내부에 Creative Industries Unit, Strategy Unit, NDPBS Unit, Education Unit, Loc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Unit 이 신설됨
 - DCMS의 창조산업 관련 업무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음. (1) 특정 산업 분야 관련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영화, 음악, 방송 등) (2) 부처를 넘어선 전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
- ‘창조산업테스크포스’(CITF, Cultural Industries Task Force) 구성
- DCMS는 창조산업 정책 입안을 위해 첫 업무로 ‘창조산업테스크포스’를 구성
 - CITF는 창조산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관, 민간 분야 합동위원회이자 중재기구 (intermediating Unit)
 - 1997년 7월에 설립되어 2000년 6월까지 활동함
 - 주요 기능은 영국 창조산업의 개념과 담론을 정교화하고 유통시키는 총본산 구실. 국내, 외적으로 영국 창조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 창조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발굴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들에 권고하기 위해 주요 보고서 발간
 - 토니 블레어의 요청에 따라 당시 초대 문화부 장관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가 의장을 맡고, 각 부처 고위 공무원, 베테랑 학자들, 정책전문가, 데이비드 퍼트남, 리처드 브랜슨 등 영화, 음악, 패션, 게임 등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산업계의 인사들을 망라하여 테스크 포스를 꾸림
- CITF는 주요 정책보고서 발간을 통해 창조산업 정책에 많은 영향력을 끼침
- 1998년 11월: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보고서 발간
 - 1999년 11월: “Creative Industries-Exports: Our Hidden Potential” 발간
 - 1999년 12월: “Creative Industries: Television Exports” 발간

- 2000년 3월 : “Creative Industries: The Regional Dimension” 발간
- 2000년 3월 : “Creative Industries: Internet Inquiry” 발간
- 2000년 4월 : “Creative Industries: Your Creative Futures” 발간
- 2000년 4월 : “Creative Industri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발간
- CITF의 대표적인 정책 보고서인 1998년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CIMD)를 통해 창조산업의 개념 확산
 - 1997년 10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6차례 회합을 통해 작성하였으며, 1998년 11월 발간함
 - 이 보고서는 영국 정부에 의해 창조산업의 개념 정의와 13가지 핵심 영역⁹⁾을 창조산업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영국에서의 창조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창조산업의 현황, 미래 성장가능성, 성장을 방해하는 핵심 장애물, 산업의 위험요소에 대해서 살펴본 최초의 보고서임
 - 이 보고서는 영국정부가 창조산업을 구체적인 정부정책으로 만들어가고 실행하는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산업계에 창조산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초석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¹⁰⁾
- NESTA(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설립(1998년)
 - 1998년 국가복권법(The National Lottery Act 1998)에 의해 2억 파운드(약 3천 4백억 원)를 국가복권위원회에서 받아서 창조산업에서 예술, 과학, 기술에 대한 재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임무를 맡은 ‘과학기술예술위원회’(NESTA)가 1998년 설립됨

9) ‘광고, 건축, 미술 및 골동품 시장, 공예, 디자인, 디자이너 패션, 영화, 쌍방향 레저 소프트웨어, 음악,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그리고 텔레비전 및 라디오’

10) Birch(2008), Andy Pratt에 따르면 아무도, 특히 정치인들은 1998년 첫 번째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가 발표되기 전에는 창조산업이 그렇게 까지 크게 경제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고 함.

- NESTA의 첫 5년 동안의 사업은 3가지로 나뉨: (1) 펠로우쉽(Fellowships) 프로그램: 재능 있는 개인들을 뽑아서 창조적 작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 제공, 3-5년 동안 7만 5천 파운드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장시키는 프로그램. (2) 발명과 혁신 프로그램(Invention and Innovation): 해마다 50-100개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위해 전문가의 투입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70명의 전문가 추천에 의한 시상식(Awards)의 실시를 통해 5만 파운드(예외적인 프로젝트의 경우 10만 파운드 이상도 가능) 이상의 상금 부여. (3) 교육(Education) 프로그램: 학습과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창조성을 배양하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¹¹⁾
- NESTA는 2000년 5월 첫 프로그램을 실시. 24개의 프로젝트에 240만 파운드를 투입. 이것은 13개 펠로우쉽 프로그램과 7개의 발명과 혁신 프로그램 수상작, 4개의 교육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은 키홀 수술(keyhole surgery)¹²⁾에서 수륙양용 자동차(amphibious vehicles)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쌍방향 기술, 시(poetry), 영화제작, 천체물리학(astrophysics), 과학센터(science centres) 등에 관한 것이었음. 두 번째 프로그램은 2001년 2월, 30개 수상작에 대해 실시
- CITF의 하부기관인 CIEPAG를 통한 금융 및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 전략 연구
 - 창조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하부 특별기관인 CIEPAG(The Creative Industries Export Promotion Advisory Group)에 의해 4개의 클러스터(콘텐츠, 디자인, 공연예술, 문화유산과 관광) 부분의 수출 지원 전략을 구상하여 1999년 5월 CITF에 보고함. 1999년 11월, "Creative Industries - Exports: Our Hidden Potential" 발간됨
- 중앙정부의 창조산업 정책의 지방 정부로의 이식
 - DCMS의 창조산업의 아이디어는 아주 빨리 영국 정부뿐만 아니라, 도시들, 지역

11) A Brief History of NESTA, Nesta. http://www.nesta.org.uk/library/documents/A_Brief_History_of_NESTA.pdf

12) 키홀 수술: 환자의 몸을 아주 조금만 절개한 뒤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하는 수술.

정부들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1990년대 창조산업분야로 명명된 분야의 고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경제 모델로서 인정받게 됨

- Mapping Document와 더불어 DCMS의 지역 특별위원회(Regional Working Group)가 발간한 ‘Creative Industries: The Regional Dimension’ 리포트¹³⁾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각 지방 및 도시 관계자들에게 빠르게 창조산업의 아이디어를 채택하도록 고무함
- DCMS 인력을 지역 정부사무소(Government Offices in the Regions)에 배치: 7급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각각 9개의 지방 사무소에 배치되어 창조산업 전파
- 새로운 지역 컨소시엄(New Regional Consortia) 구축: 문화부 장관이 1998년 12월 ‘지방문화컨소시엄’을 만들었음. 이 컨소시엄에는 DCMS, 비정부기관, 지역 기관, 창조산업관계자가 모여 설립

○ Creative London 설립

- 2002년 런던 시장인 Ken Livingstone에 의해 창조산업의 도시 경제 기여 정도와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창조산업위원회’(Commission on the Creative Industries)가 설치됨
- 그 결과 2001년 런던 시의 경제에서 창조산업은 2번째로 가장 중요한 분야를 차지함이 밝혀짐. 이에 런던 시는 런던 브랜드를 강화하고, 런던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데 창조산업을 이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4년 ‘Creative London’을 설치

○ CITF는 정부 부처 간 창조산업 전략그룹인 ‘Ministerial Creative Industries Strategy Group’(MCISG)으로 대체

- CITF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내용을 정책적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CITF는 2000

13) DCMS (2000) Creative Industries: The Regional Dimension, The Report of the Regional Issues Working Group, DCMS, London. CITF 하부그룹 보고서, 1999년 있었던 Leeds, Coventry, Bristol 지역 경제와 창조산업 관련 컨퍼런스에서 토의된 내용을 요약함.

년 6월에 해체되어 MCISG로 대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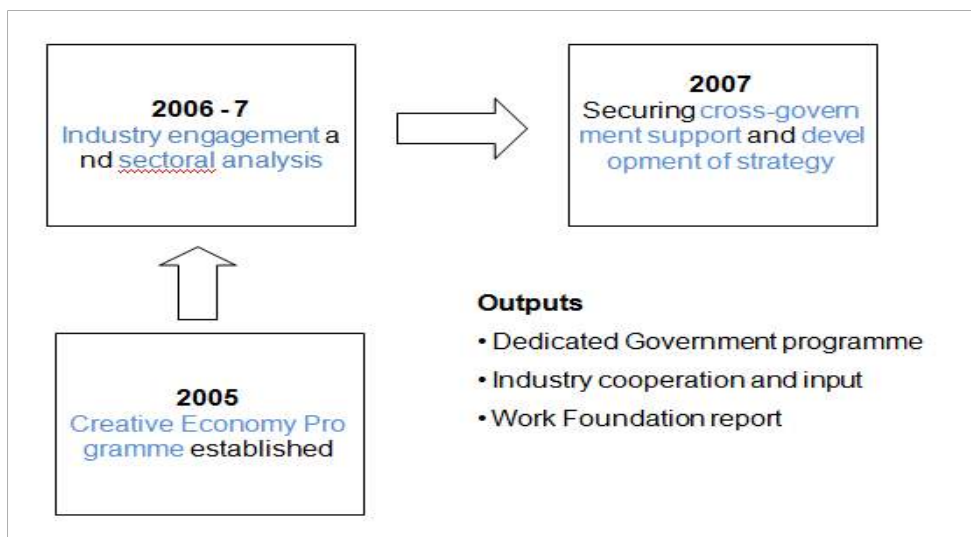
- MCISG는 창조산업 전략과 정책을 통해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 2001년 두 번째 DCMS의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출간¹⁴⁾
- 2001년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에서 창조산업이 주류산업(mainstreaming)으로 진입하였음을 밝힘
 - 이 보고서의 내용은 1998년 CIMD의 창조산업의 정의와 13개 분야의 핵심 영역을 기초로, 창조산업의 시장규모, 고용규모, 무역현황 등 산업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 정리. 또 창조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괄적인 이슈들을 2년간 조사하여 재능(skills), 교육(training), 창조산업벤처를 위한 금융(finance for creative ventures),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수출 증진(export promotion) 등의 영역에 대한 정책적 제안들을 담음
 - 창조산업을 주류 논의로 끌어올리기(Mainstreaming) 위한 DCMS외 다른 부처의 공동 노력: (1) 환경교통지역부(DETR)와 지역발전청(RDAs)의 지역차원 보고서 발간, (2) 특허청에 의한 지역에 대한 창조산업 IP관련 지원, (3) 영국수출파트너(Trade Partners UK)와 DCMS의 창조산업 유닛의 수출 아젠다 발전 합의, (4) 외무성(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의 영국해외테스크포스(Britain Abroad Task Force) 설립, 해외에서 영국의 창조 및 혁신 증진을 보조, (5) 주요 창조산업 클러스터인 스코틀랜드엔터프라이즈(Scottish Enterprise)의 창조산업에 5년간 2천5백만 파운드 지원 발표, (6) 북아일랜드의 창조산업 주도의 경제 의제를 담은 'Unlocking Creativity' report 발간
- 창조적 파트너십 프로그램(Creative Partnership Program) 시작
 - 이 프로그램은 Arts Council England의 피터 젠킨슨(Peter Jenkinson)에 의해 이

14) City University London의 Department of Arts Policy and Management의 도움으로 'Ministerial Creative Industries Strategy group'에 의해 작성

루어짐. 학교와의 직접적인 컨설팅을 통해 해당 학교가 원하는 방향에 맞는 예술 기관, 예술인들을 연결해주는 일을 통해 화가나 음악가, 안무가와 같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를 교실로 직접 파견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산·학협동 형식의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창의력을 증진하고 모든 학생이 양질의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 크게 ‘Inquiry Schools’, ‘Change Schools’, ‘Schools of Creativity’ 세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 1998년 문화부와 교육부는 공동으로 “문화와 창의적 교육을 위한 국가 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eative and Cultural Education)”를 선임, 1-2년의 구상시기를 거쳐, 2002년부터 문화부와 교육부의 공동지원을 바탕으로 문화와 교육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서 탄생¹⁵⁾
- 2003년 2월에 395개 학교에서 250개의 창조적 파트너십 프로젝트가 가동되어 17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

2) 제 2기: 2005년 - 2007년



<그림 2> 블레어 내각의 제 2기 창조산업 정책 전개

15) 영국 정부의 재정 악화로 2011년 종료됨.

- 2005년 ‘창조경제 프로그램’(CEP, The Creative Economy Program) 시작
 - 이 프로그램은 DCMS에 의해 2005년 11월 시작된 프로그램으로¹⁶⁾두 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짐. (1) 조사그룹(investigatory groups) 운영, (2) 산업계 전문가들의 조언(industry consultation) 청취
 - 프로그램의 목표: 영국 정부가 영국을 세계의 창조 허브(creative hub)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함. 창조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7개 이슈에 대해 방대한 리서치와 조사 작업, 그리고 정부와 창조산업계 간의 고위급 회의(summit)를 개최한 프로그램
 - 7개 이슈는 다음과 같음: (1) 교육과 기술(education and skills), (2) 경쟁과 지적재산권(competi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3) 기술(technology), (4) 비즈니스 지원과 재정에 대한 접근(business support and access to finance), (5) 다양성(diversity), (6) 인프라 구축(infrastructure), (7) 연구와 분석(evidence and analysis)
 - CEP를 위한 조직 구성: 5개 부서로 구성 됨. (1) CEP Ministerial Steering Board (2) CEP Program Board (3) CEP Implementation Group (4) Delivery Partners Group (5) Industry Liaison Group 으로 구성됨
- 조사그룹(investigatory groups)을 위한 7개 이슈별 워킹그룹(working groups) 조직
 - 창조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위의 7가지 이슈에 대해, 13개 창조산업 분야를 통틀어 폭넓은 컨설팅이 가능하고,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DCMS, 비정부공공기관(NDPBs), 지역성장위원회(RDAs), 그 외 정부부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워킹그룹(working groups)을 만듦¹⁷⁾

16) 주로 Secretary of State인 Tessa Jowell와 Creative Industries 장관인 Shaun Woodward이 시작하고 이어서 Culture Secretary인 James Purnell가 이어받아서 진행.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314/cmselect/cmcomeds/674/674we16.htm>

17) DCMS CEP 홈페이지, 2009.

- 산업계 조언(industry consultation)을 위한 산업간 협력 프로그램(Industry Cooperation and Input)
 - 정부가 창조산업 13개 분야의 산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이벤트와 회의를 진행
 - (1) 산업계 조찬회의(Industry “Breakfasts”): 7개 이슈별 워킹 그룹 조찬회의, 각 이슈에 대해 분야별 회의
 - (2) 섹터별 회의(Sector Summits): 장관 주재 고위 산업관계자 미팅(Secretary of State meeting with High Level Industry Representatives)으로 각 산업분야 대표자들을 초대해 창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조언을 들음. 음악, 패션, 광고, 컴퓨터 게임, 출판 등 분야별 섹터회의 개최
- 다수의 리포트 발간
 -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워킹 그룹 리포트(working group report)와 워크 파운데이션 리포트(Work Foundation Report)¹⁸⁾ 등 수많은 보고서가 출간됨.
 - (1) DCMS의 CEP팀 연구 리포트(CEP Evidence Publications 2007): 2007년 동안 6개의 연구프로젝트 보고서를 냄. CEP의 본래 취지는 이러한 리서치 프로젝트가 창조산업의 특징과 구조에 대한 더욱 구체적 이해를 정책기획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있음. 6개의 연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1) 창조산업의 통계적 분석, 2) 창조산업의 사업체 수준의 성장 분석, 3) 창조산업의 다국적 기업, 4) 창조산업의 국제적 수요, 5) 창조산업의 국가간 침해, 6) 생산성 동인에 반하는 창조산업 활동
 - (2) Working Group Reports: 위의 7개 이슈별 워킹 그룹에서 각각의 최종 리포트를 2006년 11월에 제출, 12월 출간함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090204002310/http://cep.culture.gov.uk/index.cfm?fuseaction=main.viewSection&intSectionID=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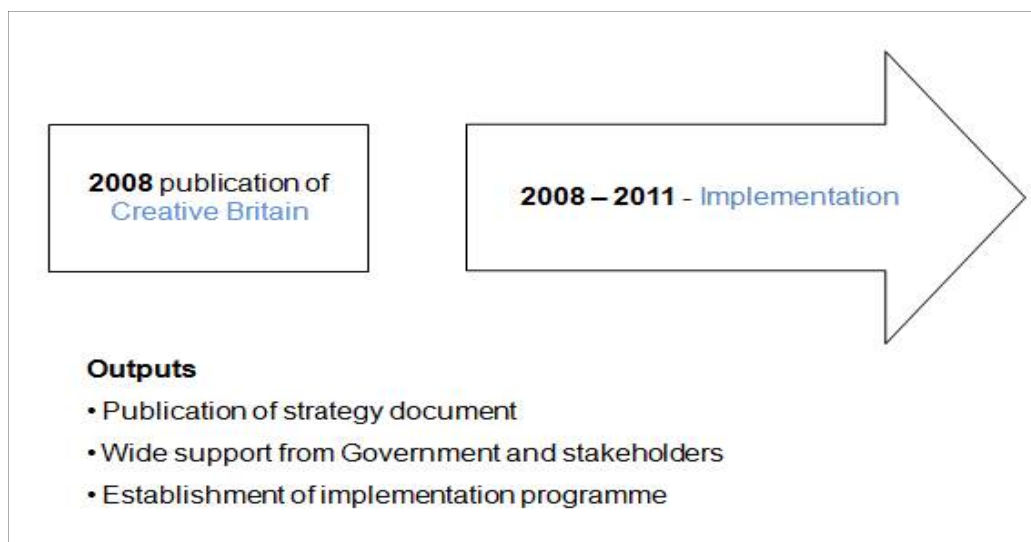
18) Work Foundation의 대표적 보고서는 “Staying Ahead: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UK’s creative industries”(2007년)

(3) Work Foundation Report: CEP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윌 휴튼(Will Hutton) 과 워크 파운데이션¹⁹⁾에게 영국의 창조경제에 대한 경제적 분석 보고서를 맡김. 그 결과 보고서로 나온 것이 "Staying Ahead: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UK's creative industries". 이 보고서는 2007년 6월 25일에 발표. 영국 경제사정을 반영하여 영국 정부의 향후 창조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 및 대응책을 제시

(4) Creative Industries Map: CEP 리서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민간 경제 리서치 기관인 Frontier Economics에 의해 창조산업 기업들이 위치해 있는 지도를 작성

- CEP 프로그램은 2008년 고든 브라운 내각의 Crative Britain 정책 속에 포함되어 Arts Council England에서 2009년까지 사업 진행

2.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내각의 창조산업 정책: 2007년 ~ 2010년



<그림 3> 브라운 내각의 창조산업 정책 전개

19) Work Foundation Commission은 2007년 4월 종료됨.

○ 신노동당의 창조산업 정책의 지속

- 창조산업 정책은 2007년 8월 노동당 고든 브라운 총리의 집권에 의해 2010년 5월 까지 지속됨
- 새롭게 시작된 고든 브라운 내각은 2007년 CEP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2월, BERR(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과 DIUS(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의 파트너십에 의해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 보고서를 작성

○ ‘Creative Britain’(2008년) 보고서 내용

- 새 내각의 창조산업 정책을 개선시키기 위한 26가지 정책 과제가 제시되고 있음
- ‘Creative Britain’ 보고서는 고든 브라운 내각이 향후 10년간 창조경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국가적 비전을 보여줌
- 26개 주요 정책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 Creative Britain의 26개 주요 정책 과제 20)

분야	정책과제
1. 창조 교육	1. ‘재능발견’ (Find Your Talent) 프로그램 운영: 정부는 향후 3년간 2,500만 파운드(약 509억 원)를 투입, 아동과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1주일에 5시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2. 창조 인재 양성	2. ‘재능경로 제도’ (Talent Pathway Scheme) 운영: 정부는 재능있는 청년들이 창조산업 일자리를 갖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멘토링을 실시하며, 전국적으로 ‘기술캠프(skills camp)’를 운영
	3. 다양한 창조 인력 육성 활동 장려와 모범사례 확산: 문화미디어체육부(DCMS)는 비정부공공기관(NOPB)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에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력 채용 장려 및 모범사례 확산
	4. 산학협동 연구 장려: 정부는 학생들이 창조경제에 효과적으로 기여 가능한 기술 습득을 위해 산학의 긴밀한 관계 구축으로 ‘기술공급(skill provision)’ 격차를 좁히고 상호이익이 되는 협동연구 수행을 장려
	5. 혁신적 창조학습 장소 설립 장려: 정부는 고용주들과 기술공급자에게 관련 장소 설립을 장려(예 : 전국기술아카데미(NSA), 컴퓨터게임우수성센터(CECG) 등)

	<p>6. 아카데미 허브(Academic Hub) 영향 분석: 정부는 학교들 간 창조교육 협력을 지원하고 청년(14~25세) 대상 ‘엔드-투-엔드(end-to-end)’ 창조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아카데미 허브(Academic Hub)’의 영향을 분석</p>
	<p>7. 견습생 제도(Apprenticeship)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 마련: 정부는 2013년까지 매년 5,000명의 인력 배출을 위한 견습생제도 도입</p>
<p>3. 연구 및 혁신지원</p>	<p>8. 창조산업 발전 프로젝트 추진: 기술전략위원회(TSB)는 1,000만 파운드(약 204억원)를 투입, 기업들이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제품·공정·서비스의 공동 개발을 통한 창조산업 발전 프로젝트 추진</p>
	<p>9. 창조적 혁신가 성장(Creative Innovators Growth) 프로그램 추진: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NESTA)은 300만 파운드(약 61억원)를 투입, 창의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상기 프로그램을 추진</p>
	<p>10. 기술이전네트워크(Knowledge Transfer Network) 구축: 기술전략위원회(TSB)주도로 창의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기술전문가, 공급업체, 고객, 대학, 연구기술기관 등을 연계해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을 목적</p>
	<p>11. 창조산업 계량화 연구 추진: 혁신대학기술부(DIUS)는 창조산업의 경제적 혜택, 혁신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정확한 계량화 연구 추진</p>
<p>4. 창조기업 성장 및 금융 지원</p>	<p>12. 창의적 중소기업에 벤처캐피탈 제공: 잉글랜드예술위원회(ACE)는 지역개발청(RDA)과 공동으로 예술적 우월성과 상업적 잠재력을 결합한 창조경제 프로그램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창의력적 중소기업에 벤처캐피탈을 제공</p>
	<p>13. 문화리더십 프로그램 추진: 지역개발청(RDA)은 영국 남서부·남동부·북서부·북동부 및 웨스트 미들랜드 지방에서 창조산업 지역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의적 중소기업들에 교육과 훈련을 실시</p>
	<p>14. 기업자본기금(Enterprise Capital Fund) 활성화: 정부는 동 기금으로 투자흐름이 촉진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 중소기업들이 이쿼티 파이낸싱 과정에서 직면하는 특정 문제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실시</p>
<p>5. 지적재산 보호 및 장려</p>	<p>15. 불법파일 공유 공동대응 의무화 법령 제정: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불법 파일공유 공동대응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2009년 4월까지 법령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p>

	<p>16. 효과적으로 지식재산이 보호·장려되는 활동계획 수립: 영국특허청(UK-IPO)은 전국우수성센터(NCE)가 지재권과 관련된 문제를 각 지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정책자원(expert policy resource)’을 허용하는 등 혁신을 통해 지식재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장려되는 활동계획을 수립</p>
	<p>17. 지식재산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제고: 정부는 학교 교과과정과 공공 캠페인 등을 통해 상기 활동을 추진</p>
<p>6. 창조 클러스터 지원</p>	<p>18. 지역 창조경제 전략적 프레임워크(Regional Creative Economy Strategic Framework) 시범 구축: 지역개발청(RDA)은 문화단체와 함께 영국 북서부와 남서부 지역에서 창의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p>
	<p>19. 미래 시장 개발을 저해하는 장애물 검토와 제거: 정부는 온라인 비디오 게임, 비디오·음반 유통, 사용자 제작 콘텐츠 보급, 차세대 브로드밴드 투자에 대한 미래 시장 저해 및 장애물 검토 제거</p>
	<p>20. 지방 인프라 메뉴(Menu for Local Infrastructure) 개발: 정부는 지방정부협회(LGA)와 지역개발청(RDA)을 통해 각 지방당국 창조허브 구축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p>
	<p>21. 도시기업 창조 허브인 혼합 미디어 센터(Mixed Media Centre) 설립: 영국영화위원회(UKFC)는 잉글랜드예술위원회(ACE) 및 인문과학연구위원회(AHRC)와 공동으로 맨체스터콘하우스와 타이네사이드시네마 같은 도시기업 창조허브 설립</p>
	<p>22. 공연장 안전성 강화: 정부는 라이브뮤직포럼(LMF) 권고에 따라 공연장 안전성을 강화</p>
<p>7. 글로벌 창조 허브 구축</p>	<p>23. 창조산업 역량 향상 5개년 전략 추진: 영국교역투자청(UKTI)은 글로벌 무대에서 혁신적·역동적 역량을 인정받는 5개년 전략을 선도</p>
	<p>24. 세계 창조기업 컨퍼런스 출범: 정부는 다보스경제포럼을 벤치마킹해 전 세계 창조산업과 금융 부문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연례 세계 창조기업 컨퍼런스를 2009년 출범</p>
	<p>25. 전국에서 개최되는 각 지역 축제와 상호 이익관계 구축: 정부는 런던 및 기타 파트너와 공동으로 런던 창의축제를 지원하고, 이들 축제가 미들즈버로 국제 애니메이션제와 버밍엄 국제영화제 등 전국에서 개최되는 각 지역 축제와 상호 이익 관계 구축</p>
<p>8. 전략 업데이트</p>	<p>26. 인터랙티브 웹사이트 구축: 정부는 창조 부문에서의 기술과 수요 등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등 위의 25개 전략의 최신성을 유지</p>

- 2년 9개월의 짧은 기간으로 인해 많은 정책 과제가 실행되지는 못함
 - 창조산업 클러스터 지원: 지역정책과 연결, DCMS와 지역문화연합(Regional Cultural Consosia)를 구성, 지역개발청(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지역문화위원회(RAB, Regional Arts Boards) 등과 정책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시행. 남동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노팅엄과 중동부 지역 등 지방 도시에 창조산업 네트워크 구축²¹⁾
 - DCMS와 산업계는 창조산업의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전략을 세우고 관련 분야 수출 선도 기업들을 지원함
- ‘Digital Britain’ 보고서 발간: DCMS와 BIS(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와 공동 작업으로 2009년 6월 16일 출간된 백서(Digital Britain White Paper)는 영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선도 국가로 남아있기 위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함

3.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내각의 창조산업 정책: 2010년 ~ 현재

- 보수당 카메론 내각에서 창조경제 정책은 변화에 직면
 - 2010년 선거에서 창조경제 정책을 주도해 온 노동당이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보수-자유민주당 연립내각에 정권을 넘겨주면서 영국의 창조경제 정책은 변화에 직면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가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연립내각은 2010년 10월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는 30%, 영화위원회(UK Film Council)는 15%, 영국공영방송(BBC: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16%

20) DCMS(2008). 차두원, 유지연(2013)

21) 서연미(2013, p.47)

등 문화 및 창조산업 분야에 지원하던 예산을 대폭 삭감²²⁾

- 워크 재단(The Work Foundation)²³⁾은 2010년 12월 발간된 ‘영국 창조산업의 미래’(A Creative Block?: The future of the UK creative industries)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와 디지털화,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난항을 겪고 있는 영국 창조산업의 문제점과 과제 지적²⁴⁾
 - 이 보고서는 영국이 국제시장에서 이전의 위치를 상실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 창조산업에 대한 연구와 혁신적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 창조산업이 성장가능한 분야라는 인식의 제고 필요성 등 주장
- 카메론 수상은 2010년 경제성장에 관한 기조연설에서 창조산업이 여전히 영국 전체 경제에서 성장 분야라고 강조함²⁵⁾
 - 창조산업의 성장을 위해 ‘성장 조건의 창조’(Create the conditions for growth) 사업 진행: 관광산업, 스포츠 이벤트 산업 활성화, 미디어 규제 개혁, BBC 개혁, 디지털 TV 전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의 창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하지만 이전의 활발한 지원 정책은 부재
- 2011년 문화부(DCMS)와 기업혁신기술부(BIS)는 공동으로 “창조산업 비즈니스와 자금”(Access to Finance for the Creative Industry Business) 보고서에서 창조산업의 자금 확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 2013년 4월부터 창조산업의 핵심분야인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TV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 감면 계획 발표. 영국 애니메이션, TV 프로그램의 해외 제작을 중

22) The Guardian(2010.10.20), BBC(2010.10.20).

23) 워크재단은 1918년 the Boys Welfare Association으로 설립. 1919년 the Industrial Society로 바뀐 뒤, 2002년 Work Foundation으로 이름이 변경. 원래 이 기관은 기본적인 노동환경개선(노동자들을 위한 식당, 화장실 마련)에 관한 활동을 했으나 지금은 정책을 자문하는 씽크탱크로 운영됨.

24) 유럽 콘텐츠 산업 동향: 디지털 시대 영국 및 유럽 창조산업. (KOCCA 유럽사무소, 2012년 13호)

25) Ibid.

식시키고 해외 프로그램들의 영국 내 제작 유치 환경 제공. 비디오 게임의 경우 세계 감면으로 향후 5년간 영국 경제에 총 2억 8000만 파운드의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

○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연립내각은 창조산업 자체보다는 IT, 디지털화 등 과학·기술·엔지니어링 분야에 정책적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²⁶⁾

- 이에 대한 두 가지 정책 제안 보고서: (1) ‘Ingenious Britain’ 보고서(2012년): 카메론 총리의 요청으로 제임스 다이슨(James Dyson)이 2010년 3월 선거 직전 보수당에 제안한 보고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분야 육성을 통해 영국이 유럽의 신기술 창출 선도 국가가 되어야 한다(Britain to become Europe’ leading generator of new technology)”고 주장

- 이 보고서에서 다이슨은 영국은 결코 포스트 산업화 국가(post-industrial state)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분야 육성에 대해 주장. 이를 위해 ①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분야 인재가 존경받는 문화 조성(Culture: Developing high esteem for science and engineering), ②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STEM) 분야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정책 개편(Education: Getting young people excited about science and engineering), ③ 대학, 기업, 비영리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Exploiting knowledge: Collaboration, not competition, between universities, companies and not-for-profits), ④ 하이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Financing high tech start-ups: Turning good ideas into world beating products), ⑤ 하이테크 기업 지원 및 R&D 투자에 대한 좋은 환경 구축(Supporting high tech companies: Creating the right conditions for R&D investment)의 5가지 정책방안 제시²⁷⁾

(2) Browne Review 보고서 : ‘고등교육 기금 및 학생 금융에 대한 독립적 검토’

26) 서연미(2013)

27) Dyson, J.(201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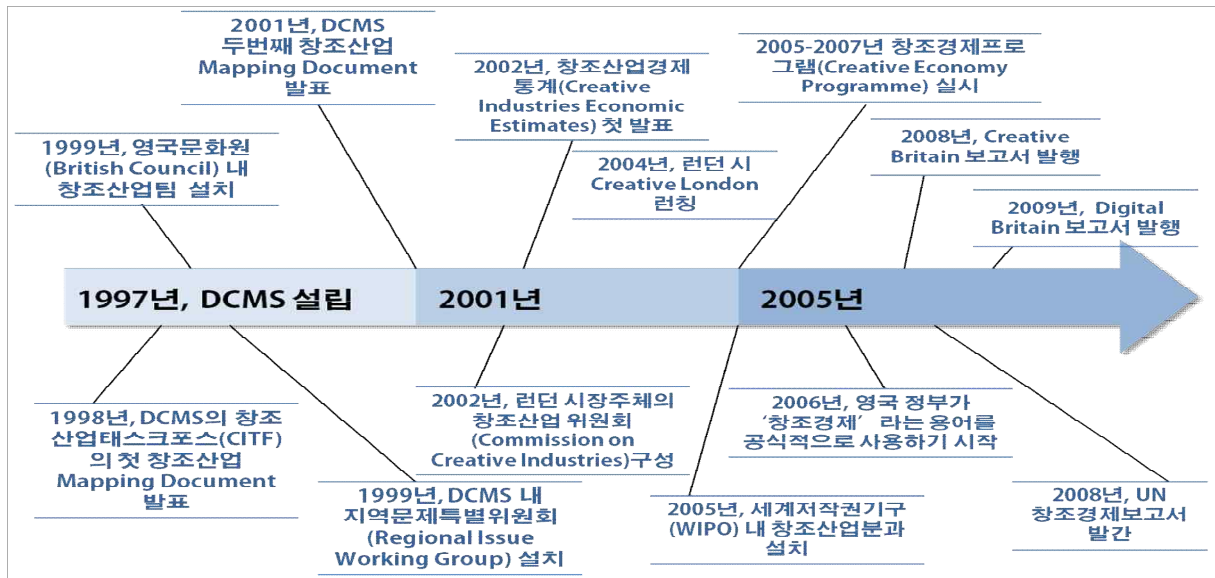
(Independent Review of Higher Education Funding and Student Finance) 보고서. 영국의 향후 고등교육 기금의 향방에 대한 것으로 2009년 9월에 시작되어 2010년 10월 12일에 그 결과를 발표. 정부는 전반적 지원 시스템 대신 우선 과목(의학, 과학, 공학, 현대 언어학)("priority" subjects - medicine, science, engineering and modern languages)에 대해서 기금 집중 지원을 권고²⁸⁾

- 카메론 내각의 창조산업이 아닌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중심 정책 지원
 - 런던 '테크 시티'(Tech City) 개발지원: 테크 시티는 런던 동부지역(Inner East London)에 형성된 IT 및 미디어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벨리'를 모델로 2010년 11월부터 이 지역에 글로벌 테크 허브를 구축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
 - 2012년 12월 6일, 영국 정부는 테크 시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 파운드를 투자 발표. Tech City Investment Organization(TCIO)에 따르면, Microsoft, Cisco 등 주요 글로벌 IT 기업과 University College London, KPMG 등도 테크 시티 구축에 참여. 이 외에도 Alert Me, Barclays, Ravensbourne, Skills matter, Salesforce.com 등이 참여 계획 밝힘. 2012년 약 1,300개의 업체가 테크 시티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²⁹⁾
- '수퍼 커넥티드 시티(Super-connected City)' 선정 지원: 2012년 3월,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주요 10대 도시에 보급하기 위해 1억 파운드 보조금 계획을 발표. 또 5천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10대 지역 외 다른 지역에도 확대 보급(약 20개 도시). 2012년 6월 26일 프로젝트 시작, 2015년 3월 31일 종료 계획³⁰⁾

28) The Guardian (2010.10.12).

29)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 CONEX(정보통신방송해외정보시스템) Trend Report 2012.12.17

30) <https://www.gov.uk/government/news/ten-super-connected-cities-announced>



<그림 4>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변천 31)

IV. 결론: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특성

○ 영국 창조산업 정책은 문화 정책이 아닌 산업 정책

- 영국 창조산업 정책은 문화 정책이 아닌 산업 정책으로 주요한 목표는 산업의 혁신(innovation)과 비즈니스(business) 창조에 있음. 그러므로 비즈니스와 혁신 정책 우선주의, 나머지 문화정책으로 보충함
- 신노동당 정부에서는 창조산업을 통한 경제 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 수출 증진, 지적 재산권 보호 등 국가의 산업과 도시 경쟁력 증진이 주 목적
- 창조산업을 이용해 국가정체성 관리(national identity management), 국가 이미지 제고, 국가 브랜드화(branding)와 국가 마케팅을 통해 외국인 투자, 외국 기업 유치, 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31) British Council(2010). Mapping the Creative industries: a toolkit. 재구성

- 영국 정부의 산업 중심적 정책 집행으로 영국 창조산업은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평가됨. 그러므로 블레어 내각에서부터 브라운 내각까지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 과 교육 시스템, 인력 양성 등의 인프라 구축, 카메론 내각에서는 ‘성장을 위한 조건’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광대역 인터넷 등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음
- 영국 창조산업 정책은 신노동당에 의한 일관된 정책 집행
- 영국의 창조산업은 신노동당 정부(1997-2007, 2007-2010)에 의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특별 정책 프레임워크 하에 집행됨
 - 단일화된 정책 주도 기관(DCMS)에 의해 명확한 정책목표와 중앙집권적 자원 배분의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 노동당의 지속적인 집권으로 정책행위자들이 연이어 창조산업 육성의 노하우를 집적해가며 계속 조정(coordination)해 가는 것이 가능했음
-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산업계 간의 조화
- 정책은 하향식으로 중앙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으나 지자체와 이해조직들(shareholders) 역시 영향력을 가지는 정책 집행 방식이었음
 - 어떻게 창조산업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지자체들과 산업계의 보편적인 견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었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적 관점에서 잘 이용할 수도 있게 됨
-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문제점
- 비즈니스 측면에 대한 강조가 창조성, 교육, 문화와 같은 더 넓은 범위의 문제들을 놓치게 할 가능성이 있음
 - 하향식 정책 집행방식이 유연성과 기초교육을 부족하게 하였다는 지적도 있음
 -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도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어 선택된 산업분야들, 예를 들어

디자인, 미디어 등의 분야만을 지원하기도 함. 이는 빠르게 산업의 변화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선택된 영역만 육성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는 평가도 있었음

- 영국의 창조산업 개념과 정책 방향은 ‘생산(production)’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고, ‘소비’(consumption)의 측면은 고려가 되지 않았음
- 영국의 정책은 창조산업 육성에 있어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수용자 복지(welfare) 측면에 대한 고려가 빈약하였다는 지적도 있음

참고문헌

김정곤, 김은지, 김윤옥(2013). 주요국의 창조경제 추진사례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 경제*, Vol.13, No.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2010). OECD 주요 국가 콘텐츠산업 및 정책현황 비교.

서연미(2013). 외국의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동향. *국토*, 2013년 6월호 (통권380호), pp.44-51.

윤미영, 박선주(2011). 스마트 사회 실현을 위한 신(新)국가정보화전략 분석 ③-영국. *IT&SOCIETY*, 33(단일호), 1-35,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종은(2013).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부상 -개념들의 변천에 관한 고찰, *문화정책논총*, 제27집 1호, 122-145.

차두원, 유지연(2013).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 *ISSUE PAPER 2013-01*, KISTEP.

최보연(2006.08.01). [해외소식] 창의성과 교육의 만남-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 (Creative Partnerships),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진. [online source] <http://www.arte365.kr/?p=4077>

- 한국인터넷진흥원(2012). “영국 정부, Tech City 구축 계획에 5,000만 파운드 투자 발표”, 정보통신방송해외정보시스템(CONEX), 2012.12.17.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12. 12. 18). 영국, 슈퍼 커넥티드(Super-connected) 도시 구축사업 추진, Spectrum Policy Trend & Insight.
- 한국콘텐츠진흥원(2009). 영국 창조 산업의 사례분석 및 벤치마킹 방안. KOCCA Focus 09-01(통권 제1호).
- 한국콘텐츠진흥원 유럽사무소(2012). 영국 정책 추진체계 현황. 유럽 콘텐츠산업동향, 13호.
- _____ (2013). 디지털 시대 영국 및 유럽 창조산업. 유럽 콘텐츠 산업 동향, 12호.
- Banks, M., & Hesmondhalgh, D.(2009). Looking for work in creative industries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5(4), 415-430.
- BBC(2010.10.20). Arts Council's budget cut by 30%. [online source] <http://www.bbc.co.uk/news/entertainment-arts-11582070>
- Birch, S.(2008). *The Political Promotion of the Experience Economy and Creative Industries: Cases from UK, New Zealand, Singapore, Norway, Sweden and Denmark*. Samfundslitteratur.
- British Council(2010). Mapping the Creative industries: a toolkit. British Council, London.
- Browne Review(2010). Securing a sustainable future for higher education. [online source] <http://www.independent.gov.uk/browne-report>.
- Calladine, W.(2009).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a New Economy, The UK strategy for the Creative Industries, 26-27. 10. 2009, Forum for Creative Europe, Prague, Czech Republic.

- DCMS(1998).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s, DCMS, London.
- _____(1999). Annual Report 1999. DCMS, London.
- _____(2000). Annual Report 2000. DCMS, London.
- _____(2000). Creative Industries: The Regional Dimension, The Report of the Regional Issues Working Group, DCMS, London.
- _____(2001). Annual Report 2001. DCMS, London.
- _____(2001).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s, DCMS, London.
- _____(2002). Annual Report 2002. DCMS, London.
- _____(2003). Annual Report 2003. DCMS, London.
- _____(2004). Annual Report 2004. DCMS, London.
- _____(2005). Annual Report 2005. DCMS, London.
- _____(2006). Annual Report 2006. DCMS, London.
- _____(2007). Annual Report 2007. DCMS, London.
- _____(2008). Annual Report 2008. DCMS, London.
- _____(2008). Creative Britain: The Future of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 DCMS, London.
- _____(2009). Annual Report 2009. DCMS, London.
- _____(2009). Autumn Performance Report 2009. DCMS, London.
- _____(2009). Update on implementation of *Creative Britain* - October 2008 to February 2009. DCMS, London.

- _____(2010). Resource Accounts 2009–2010. DCMS, London.
- _____(2011). Annual Report Resource Accounts 2010–2011. DCMS, London.
- _____(2011). Business Plan 2011–2014. DCMS, London.
- _____(2012). Business Plan 2012–2014. DCMS, London.
- _____.Creative Economy Programme Webpage. [online source]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090204002310/http://cep.culture.gov.uk/index.cfm?fuseaction=main.viewSection&intSectionID=408>
- Dyson, J.(2010). *Ingenious Britain: Making the UK the leading high tech exporter in Europe*, London.
- Flew. T.(2012). *The Creative Industries: Culture and Policy*, London, Sage Publication.
- Garnham, N.(2001), *The UK Cultural Sector, profile a policy issues*, in Selwood S. (ed.),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pp. 445–458.
- Hartley, J.(Ed.).(2005), *Creative Industries*, Oxford: Blackwell.
- Howkins, J.(2002). *The creative economy: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Penguin UK.
- Nesta. A Brief History of NESTA, [online source]
http://www.nesta.org.uk/library/documents/A_Brief_History_of_NESTA.pdf
- Throsby, D.(2008). Modelling the cultural indus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4(3), 217–232.
- The Guardian(2010.10.20). BBC budget cut by 16% in spending review, George Osborne confirms. [online source]
<http://www.theguardian.com/media/2010/oct/20/bbc-cuts-spending-review>

_____ (2010.10.12). Browne review at a glance. [online source]
<http://www.theguardian.com/education/2010/oct/12/browne-review-at-a-glance>

The Work Foundation(2007). Staying Ahead: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UK's creative industries, The Work Foundation, London.